



김 정 덕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소장

'92년을 전자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임신년 새해에도 전자업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고 계획하신 일마다 꼭 이뤄지게 되길 기원합니다.

전자정보산업이 수출, 고용, 경제성장 등에 있어서 우리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으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자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의 책임을 거의 개별기업에게 맡겨두었을 뿐, 종합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연구소 하나 갖지 못했던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종합연구소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소요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설립을 미뤄왔던 것인데, 이번에 우리 업계가 자발적으로 설립 출연금을 선뜻 내주신 데 대해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간기업은 이익 창출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산업발전 방향에 비추어 꼭 개발이 필요한 분야임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경제성이 없거나 그 우선순위가 뒤질 때는 투

자를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백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 메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정부의 간접지원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유도나 국책기관을 통한 직접투자가 있겠는데, 전자산업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후자의 방법보다는 전자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 방법이 기업의 투자심리에 의해 투자의 효율을 쉽게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나, 산업의 초화로운 육성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산업기술개발의 선도 역할을 할만한 연구소 하나 없다가 다행히 지난해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91. 3. 14)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8월 30일 본 연구소가 문을 열게 되어, 전자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연구소가 설립된지 불과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임직원들은 업계와 정부가 부여해 준 역할 수행을 위해 우수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며, 체계적

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기본장비를 구비하는 등 연구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종합기술이라 함은 전자부품의 소재, 재료, 설계, 공정장비기술 등을 총망라 하며, 단계별로는 기초기술, 응용기술, 상품화기술로 나눌 수 있는 전자산업의 뿌리에 해당되는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시급한 요구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이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희망은 '92년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으로 기술개발과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전자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의 확고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며, 다음 몇가지에 특히 중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연구개발기반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각 분야의 능력있는 필수연구원 확충과 분야별 기본장비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함으로써 업계의 시급한 기술개발 요구를 수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연구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전자업계와의 긴밀한 유대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우리 업계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인 만큼 연구개발의 방향 및 목표가 우리 업계의 요구와 달라서는 안될 것이며,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1차적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개발하여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셋째, 연구개발 능력을 키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자부품의 연구개발 능력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져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존 연구소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배척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동기유발 및 연구 효율증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업계 및 학계와의 산·학·연 공동 또는 협동개발 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91. 8. 30일 4명으로 출발하였던 연구소가 이젠 연구원도 7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조직체제도 갖추어 유기체의 모습으로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설립된 연구소인 만큼 저희 임직원은 그 소임을 다하여 '92년을 한국전자산업의 재도약을 다지는 기술개발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